

내장역위증(Situs Inversus)에서 발견된 담도암 1예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소화기 연구소

오명진* · 천영국 · 문종호 · 조영덕 · 조주영 · 김연수 · 이문성 · 심찬섭

내장 역위증은 정상적으로 비대칭인 내장기관의 좌우 전위를 의미하며 Varano 등에 따르면 성인 5,000명에서 10,000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 매우 희귀한 선천적 이상이다. 전체 내장 역위증이란 흉부에서 심장과 대동맥이 우측으로 전위되고 좌측폐가 삼엽으로 우측폐가 이엽으로 구성되며 복부에서는 간과 위장이 역위되고 담낭이 중심성 좌측으로 췌장과 비장이 우측으로 역위된 경우이고 부분적으로 일어난 경우를 일부 내장 역위증이라 한다. 문헌상 내장역위를 가진 사람에서 간암, 위암, 신장암, 대장암 등 악성 종양이 발생한 예가 발표되었고 담도암이 발생한 예도 Brain 등이 1991년 발표하였다. 담도암 역시 사후 부검상 0.01-0.46% 발견될 정도로 발생 빈도가 낮아 내장 전위가 담도암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하지만 Brain 등은 내장 역위가 각각의 정상 기능의 장기 구조의 전위이므로 악성 종양 발생에 영향을 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연자 등은 최근 일부 내장 역위를 가진 53세 여자 환자에서 발생한 간내 담석의 치료후 발견한 담도암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략) 53세 여자 환자가 내원 1개월전부터 발생한 지속적인 복부불쾌감과 전신쇠약을 주소로 입원하였다. 과거력상 3년전 담낭염으로 담낭제거술을 시행받았으며 5개월전 간내담석에 의한 담관염으로 인근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잔여 간내담석제거를 위한 경피경간담도경색술을 본원에서 시행받았다. 이때 시행한 경피경간적담도경상 우측간내에서 다수의 담석이 관찰되어 제거하였고 우측 간내담관의 상분절에서 심한 염증소견이 있어 조직검사 시행하였으나 만성 염증소견만이 관찰되었다. 계통적 문진상 지속적인 복부불쾌감과 전신쇠약을 호소하였고 진찰 소견상 특이 소견 없었으며 말초 혈액 검사상 백혈구 $5600/\text{mm}^3$, 혈색소 $13.7/\text{mm}^3$, 혈소판 $102000/\text{mm}^3$, 혈액생화학 검사상 AST 73.4 IU/L, ALT 34.5 IU/L, ALP 498.1 IU/L, Total bilirubin 2.2 mg/dl 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종양 표지자 검사상 CA19-9 2.85 U/ml, CEA 8.46 U/ml로 CEA가 이전에(최초 입원시 CEA 4.26 U/ml) 비해 많이 증가되어 있었다. 복부초음파 검사상 간내에 이전에 관찰되지 않던 혼합에코성의 종괴와 복수가 관찰되었고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상 내장 역위증과 경계가 조영되는 용집된 저음영의 종괴가 간내에서 관찰되었다. 환자는 담관암 진단하에 항암요법을 시행하며 추적 관찰중이다.

경피적 경도관적 담도생검의 유용성

계명대의 내과학교실, 방사선학교실¹

허정욱 · 윤영호 · 황계석 · 안성훈 · 박승국 · 김 홍¹

목적 : 담관질환에서 양성 혹은 악성질환을 감별하는데는 임상적, 생화학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에 따라 대개 가능하지만 때로는 양자 감별이 어려울 때 병리학적 검사가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담도경이 필수적이고 최근에는 내시경경자 삽입생검이 이용되기도 하나 PTBD를 시행한 경우 이를 통한 생검이 용이하여 이의 유용성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황달 혹은 담관질환 환자중 담관폐쇄가 확인되어 PTBD를 시행한 24예에서 10F stent introducer를 삽입 후 이를 통하여 내시경 생검용 검자를 소독한 후 삽입하여 투시 하에 3-4 절편의 조직을 채취하였다.

결과 : 임상진단상 담관협착(양성)을 보인 8예에서 조직소견으로는 염증소견 4예, 섬유화 1예, 이형성 1예, 진단불가 2예, 담관암으로 진단된 13예에서 조직소견상 선암 10예, 전이암 1예, 진단불가 2예, 담낭암, 췌장암 및 간암의 각각 1예에서는 생검상 선암, 림프종, 간세포암의 소견을 보여 양성 및 악성질환에서 조직학적 진단의 민감도는 87.5%였고, 생검 후 출혈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 예는 없었다.

결론 : 담관질환에서 양성 혹은 악성질환의 감별이 요하는 경우 담도경이 없이도 PTBD만 가능하면 이를 통한 담관조직생검(PTBB로 명)은 진단의 민감도가 높아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